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마련

도교육청, 단체협약체결 따른 노동조건 개선·임금협약 처우개선 사항 등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제1회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전북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을 교육기관에 안내해 적정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된다.

종합운영계획 적용 대상인 교육공무

직원은 총 40개 직종에 6,377명(4월1일 기준)이다. 교육공무직원은 채용기관과 각종 사법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교육기관에서 행정 또는 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무기계약노동자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사항(유급휴일, 이직경력 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등 반영) △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 등 반영) △교육기관 업무처리 적정 추진

사항(인사용어, 일반원칙, 업무절차)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을 12월 초까지 모든 교육기관(학교포함)에 배부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노사 협의로 마련된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무용학과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을 개발했다.

꿈의 무용단, 무대에 오르다

27일 전통문화전당서 공연... 전석 무료 전북대 무용학과, 중학생 대상으로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 개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2022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에 선정,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 결과물을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꿈의 무용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춤과 움직임의 무용할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관·정체성·미래 역량 발굴 등 다면적 성장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고령정 교수(비레전공)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움직임을 토대로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26주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 오는 27일 청소년(쁘띠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어낸 비레와 융복합 예술작품인 'Freak Land'를 공연한다.

한편 'Freak Land'는 독일 Staatsbühne Nürnberg 빌레단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 프랑스 L'ecole des beaux-arts de Monaco에서 학위를 받은 비주얼 아티스트 외에 영국 Brunel University, 미국 ABT, 국립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에서 학위를 받거나 활동했던 최고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비레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예술작품이다.

/정은성기자

'전북 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 개막

창의미술 운영 16개 학교 참여... 웹툰·공예 등 작품 선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4일까지 전주교목문화회관 전시장에서 2022 전북학생 창의미술 릴레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도교육청의 '창의미술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한 도내 초·중·고 1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창의미술 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력과 풍부한 인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교내·외 미술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순수미술 주제가 있는 웹툰, 디자인 공예, 한지인상 등 전통미술 콘텐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18~21일 1차 전시에는 수남초, 군산신북중, 서전중, 우전중, 이리북중, 전주공고, 전주성심여자고, 전주한일고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22~24일까지 2차 전시에서는 심원초, 전주대정초, 삼우중, 강계중, 강호향공고, 군산중앙여고, 만경여고, 함열여고 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바쁜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또한 학생들의 재능을 갈고 닦아 작품을 준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달까지 졸업생 상담 프로그램 진행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과 직무의 스토리텔링을 지원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생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상담 △경력개발 계획 수립 상담 및 안내 △구직서류 컨설팅 지원 △일일경험 안내 및 군산대학교 우수채용지원제도 연계로 진행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희망자는 군산대학교 제2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자소서, 이력서 컨설팅, 진로상담 등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군산대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졸업생 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졸업생들이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층에게 진로탐색,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지도, 비대면 상담 일지리 매칭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력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광근 기자

전공심화과정 운영 진단 '최우수'

전주기전대 응급구조과 S등급·치위생과 A등급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찬)은 최근 실시된 2021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진단에서 응급구조과가 S등급을, 치위생과가 A등급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와 연계된 직업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심화과정이다.

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부터 연차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진단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3년 주기를 적용해 그룹별 순차적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진단에서 S

등급 받은 응급구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응급의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창의융합형 전문응급구조사 양성을, 또 A등급을 받은 치위생과는 현장실무사례 기반 PBL(Problem-based learning) 수업 도입 및 적용이 각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김광수 교무학생처장은 “2021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진단 결과에서 S등급과 A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학과 교수님들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과 특성을 살린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기자



군산기계공고 김장담그기 행사

신풍동주민센터에 전달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김종천)는 지난 16일 10kg 봉이 30박스의 김장 김치를 신풍동주민센터(동장 이현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는 이승래·현옥선 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봉사 동아리인 4H와 글꽃 동아리 학생 40여 명과 교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신풍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17일에는 익산시 용암면에 있는 장애인 유아원인 맑은집에도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승래 교사는 “봉사과 섬김을 통해 바른 인성이 길러지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직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교장은 “나누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내 고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기계공고는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연탄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온라인 코딩 통한 문제풀이 실력 뽐내다

도교육청 미래교육 해커톤

SW·AI교육 창의캠프 성료

2022 미래교육 해커톤 SW·AI교육 창의캠프가 지난 1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캠프는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정보교사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129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SW·AI교육을 확산시키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하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데 모여 코딩을 체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캠프는 오전에는 ‘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얼마나 알고 있나 알고리즘 왕 찾기, 내가 코드 스피드 신이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오후에는 본격적인 코딩을 통한 문제풀이가 진행됐다. 총 15개 문항이 출제, 사전에 제공된 교재와 학습사이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한 뒤 이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출제된 문제를 읽고, 답이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SW·AI교육 창의캠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을 만나서 매우 반갑다”며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SW·AI 교육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미래교실 환경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학 위기 극복·경쟁력 강화

박성태 신임 원광대 총장 선임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제14대 원광대학교 총장에 박성태(경영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원광학원은 신임 총장 초빙을 위한 공모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했다.

집수 마감 결과 조성갑·박성태·남궁문·박은숙·김인중·박행수 등 교내인사 4명과 교외인사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공모에 응했다.

이후 15인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공개토론 대상으로 박성태·남궁문·박은숙·김인중 교수를 선정했다.

또 원광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의 경영계획에 대한 3차례의 공개토론과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자 평가 결과서를 채택해 원광학원 이사회에 제출했다.

원광학원은 총장후보자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결과서를 접수한 후 이사



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는 11월 17일 총장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거친 후 박성태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원광대를 이끌게 된다.

박 교수는 1985년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돼 원불교교수협의회장, 경성대교장, 경영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 한국산업경제학회, 대한경영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박성태 차기 총장은 대학경영계획서를 통해 원광대의 위기극복과 지역사회 소통을 내세운 비전 제시와 함께 창·취업 역량강화, 교육·연구·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산학관 커풀링 사업으로 지난 7~16일 총 3차례에 걸쳐 취업방문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취업방문지원 프로그램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산학관 커풀링 사업으로 지난 7~16일 총 3차례에 걸쳐 취업방문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예수병원, 대진병원, 전주병원의 간호부서장, 대학 졸업생 및 취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특강과 간담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취업기관에 대한 이해와 조직 몰입도를 증진시켜 이직률을 감소하고, 취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선영 교수는 “올해 취업한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 적응력을 고취시키고, 또 내년에 취업하는 4학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추진했다”며 “특히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